

전주시가족센터 운영체계의 문제점과 일원화 필요성

가. 현황 및 운영배경

- 센터 통합: 2025년 1월 1일,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와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되어 ‘전주시가족센터’로 출범.
 - 위탁 운영: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법인 운영
 - 조직 환경 변화: 2025년 6월, 전주시 조직개편으로 인해 전주시가족센터 관련 업무가 다음과 같이 **이원화**되어 운영 중임.
 - 인구정책청년국(인구정책과/다문화지원과): 다문화 및 관련 정책 담당
 - 복지환경국(여성아동과): 가족친화 및 관련 사업 담당
- ※ 2개 국, 2개 과에서 업무를 분할하여 관리함

나. 현 운영체계의 비효율성 (이중적 행정 부담)

- 보고 및 결재 체계 이원화: 동일 기관임에도 관할 부서에 따라 보고 체계가 분리되어 행정력 낭비 초래.
- 예산 및 회계의 복잡성: 업무 성격에 따른 예산 지원처가 상이하여 통합 예산 집행 및 정산 시 비효율 발생.
- 직원 관리 및 지도점검의 모호성: 지도점검 주체가 이원화됨에 따라 현장 운영의 일관성 유지 곤란 및 업무 혼선 발생.
- 사업 추진의 비연속성: 가족사업과 다문화사업은 ‘가족’이라는 포괄적 복지 영역임에도, 통합 6개월 만에 다시 분리 운영됨으로써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대상 맞춤형 복지 서비스의 연계성과 통합성 저해

다. 개선요구

- 운영 체계의 일원화: 현재의 파편화된 조직 구조를 단일 담당 부서로 일원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함.
- 통합 운영의 실효성 확보: 가족센터 통합의 본래 취지인 ‘수요자 중

심의 통합적 복지 서비스 제공' 을 위해 업무 지휘 체계 및 감독 부서의 일원화가 필수적임.

- **현장 중심의 복지 행정:** 이중적 행정 부담을 해소하여 현장 실무자들이 다문화 가족 및 지역사회 복지 증진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